



동지(冬至)사들 지나긴 밤을~ | 황진이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작자 미상

딉들에 동난지이 사오 | 작자 미상

(가)

동지(冬至)사들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 초창 동짓달 지나긴 밤의 허리를 베어 냄. 중창 베어낸 것을 춘풍 이불 아래 넣어 둠. 중창 임이 돌아오는 날 베어 둔 시간을 펼치고 싶음.

(나)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들져귀 수들져귀
빅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쫓닥 바가 이내 가 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 작자 미상

▶ 초창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음. 중창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창을 만들고 싶음. 중창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은 이유

(다)

딉들에 동난지이¹⁾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²⁾ 괴 무서
시라 웨는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³⁾ 으스스흐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계것이라 흐렴은

- 작자 미상

▶ 초창 상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되었음. 중창 상인이 계의 동작이나 계것의 맛을 강황하게 묘사함. 중창 상인의 현학적인 태도를 비판함.

여휘 풀이

1) 동난지이 - 계것. 2) 황후 - 물건. 3) 청장 - 진하지 않은 간장.



핵심점점

<동지(冬至)사들 지나긴 밤을>

☑ 시구풀이

◆ 동짓(冬至)달 지나긴 밤을

- 음력 11월인 이 동짓달, 길고 긴 이 밤의
- 임 없이 홀로 지내는 화자에게 있어서(중창의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을 통해, 화자가 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 즉 현재 화자가 임 없이 홀로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겨울의 긴 밤은 혼자 있기 힘든 외로운 시간일 것이다.

◆ 한 허리를 버혀 내어

- 허리 한 부분을 베어 내어, 다시 말해 홀로 외로이 있는 이 밤 시간 중 일부를 따로 떼어 내어
- 추상적 대상인 '밤'을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처럼 표현하고 있는 대목으로(밤의 허리를 베어 내어), 밤 시간의 일부를 (임 없는 지금) 모아두었다가 임이 올 때 '비축된 이 밤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다.

- 자를 수 없는 추상적인 대상인 '시간'을 베고 표현함으로써 구체적인 사물로 현실화 하였다. 임과 함께할 수 없는 지나긴 동짓달 밤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이 이불 아래 (베어낸 밤의 한 허리를 - 아껴 놓은 밤 시간들) 둥글게 잘 말아 두었다가
- '서리서리'는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형클어지지 아니하도록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을 가리키는 의태어이다.

◆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정든 임 오시는, 그날 밤이 되거든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 두었던 밤의 한 허리[시간]를) 굶어진 곳 곳마다 구김 없이 평평하게 펼치리라
- 밤의 한 허리를 베어 놓으려는 이유가, 훗날 임이 와서 임과 함께 할 수 있는 밤 시간이 정작 많이 필요해 질 때, 그때 임과 함께 있는 밤 시간을 오래토록 늘리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창의 '서리서리', 중창의 '구뵈구뵈' 등의 음성상징어를 통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인 '시간'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 특징

- 성격: 감상적, 낭만적, 연정가
-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였고, 우리말의 우수성을 잘 살려 냄.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임.
- 비유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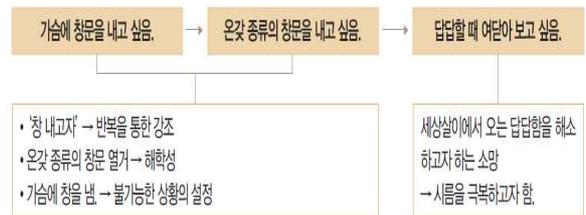
시구 풀이

-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창문을 만들고 싶다, 창문을 만들고 싶다 이내 답답한 가슴에 창문을 만들고 싶다(창문을 만들어 이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싶다) : aaba구조
 - 사는 게 너무도 답답해, 즉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방 안의 답답한 공기를 창문을 통해 빼낼 수 있듯이, 그러한 창문을 자신에 마음에도 달아보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엿볼 수 있다.
 - 창: 답답함을 해소하는 매개체
-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들져귀 수들져귀 배목걸새
 - 장지문 형식으로 창틀을 짠 후, 암들져귀와 수들져귀를 각각 창틀에 달아 배목 걸쇠를 가져다 댄 후
 - 장지문의 종류와 그 부속품을 길게 나열하여 시적 화자의 소망이 매우 간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 모두 '장지문'의(옆으로 밀어 열거나 닫는 미단이 문의 일종) 일종으로, 본 글에서는 '창문' 혹은 '창문 틀'의 여러 종류를 가리킨다. 그리고 '들져귀'는 문짝을 문설주에(문설주 :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를 가리킨다. '배목(걸쇠)'은 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둥글게 구부려 만든 고리 걸쇠를 가리킨다.
- 크나큰 장도리로 뚝뚝 박아
 - 크나큰 망치로 뚝뚝 소리 나게 박아
 - '뚝뚝(뚝뚝)'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됨으로써 창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동감 있게 전달되고 있다.
-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내 이 답답함 마음에 창문을 만들고 싶다
 - 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부속들이 수다스럽게 나열됨으로써, 가슴에 창을 만드는 상황이 과장되어 표현됨으로서, 이를 듣는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 잇다감 하(하)시 답답할 제면
 - (그렇게 가슴에 창을 만들어) 이따금 많이 답답할 때면
- 여다져 불가 하노라
 - 열었다 닫았다 해 불가 하노라

- 근심과 걱정이 가득 쌓인 화자의 마음이 답답한 방안에 비유되고 있는 가운데, 창을 열면 방안의 답답한 공기가 빠져나가듯, 화자 가슴의 창 또한 이를 열고 닫고 하면 화자 마음의 근심 걱정이 밖으로 나갈 것이기에, 본 대목과 관련하여 화자가 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린 것이다.

특징

- 성격: 해학적, 의지적, 구체적
- 답답한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문학적성을 획득함.
- 비애와 고통을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해학성이 돋보임.
- '창'과 관련된 구체적 사물들을 열거하여 삶의 괴로움을 강조하면서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함.



<덫들에 동난지가 사오>

시구 풀이

- 덫들에 동난지가 사오
 - 이보시오 사람들아 계것 좀 사시오
 - 계것 장수가 '계것'이라는 쉬운 말을 쓰지 않고 '동난지'라는 어려운 말로(현화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저 장수야
 - 동난지가 사라고 외치는 저 장수야
- 네 황후* 귀 무서시라 왜는다 사자
 - 네 물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리 외치고 있느냐, 그래 (한번) 사보자
 - 계것 장수의 말을 들은 다른 화자가 상대방인 계것 장수의 말을 들은 후 되묻고 있다.
 - 작품 안에서 대화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외골내육(外骨內肉)
 -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겉은 (뼈처럼) 딱딱하고 속은 (살처럼) 말랑말랑하며
-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 두 눈은 하늘을 향하고
- 전행(前行) 후행(後行)

- 앞으로 그리고 뒤로(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 작은 다리가 여덟 개, 큰 다리가 두 개라!
- **청장(淸齋)* 으스스하는 동난지이 사오**
- 연한 간장에 잘 담가, 한 입 씹을 때 아사삭 소리가 나는 바로 이 게것 좀 사시오
- ‘으스스(아사삭)’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됨으로써 게것을 씹는 상황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 중장은 게것 장수가 게것 속 게의 외양과 움직임에 대해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것이라 하렴은**
- 이놈의 게것 장수야 그렇게 거북하게(길고 어렵게) 의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그냥 게것이라 하거라
- 게것 장수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화자의 말이다.
- 불필요하게 한자 어구를 나열하며 짤난 척하는 게것 장수의 위선과 허위를 나무라고 있다.

☑ **특징**

- 성격: 해학적, 풍자적
- **대화체**를 사용함.
- 의성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함.



※ **항진이, <동지 사 들 기나긴 밤들>**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한 기다림**
- 해제: 이 작품의 화자는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며 간절하게 재회를 바라고 있다. 우리말의 모미를 살린 음성 상징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등의 기법을 통해 임에 대한 애뜻한 기다림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있어 조선 전기 시조 중 **연정가(戀情歌)**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임이 부재하는 동짓달 밤이라는 부정적 시간을 단축하여 긍정적 시간인 임이 오는 날 밤을 연장하겠다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 구성
- 초장 동짓달 기나긴 밤의 허리를 베어 냈.

중장 베어낸 것을 훈풍 이불 아래 넣어 둔
중장 임이 돌아오는 날 베어 둔 시안을 펼치고 읽음

※ **작자 미상, <참 내교자 참을 내교자>**

- 주제: **마음속의 비애와 고통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
- 해제: 이 작품의 화자는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에서 오는 답답한 심정을 짝 막혀 있는 방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심정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을 가슴에 참을 내는 행위로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생활 언어와 친근한 생활 주변의 일상적 사물을 다소 수다스럽게 열거함으로써 리로움을 강조하는 수법은 다분히 해학적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비애와 고통을 어렵게만 그리지 않고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사실시조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에서 오는 답답한 심정을 가슴에 참을이라도 내서 시원스럽게 해소하고 싶다는 발상은 매우 인상적이다.
- 구성
- 초장 가슴에 참을 만들고 읽음
- 중장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참을 만들고 읽음
- 종장 가슴에 참을 만들고 싶은 이유

※ **작자 미상, <뒤뜰에 동난지이 사오>**

- 주제: **상인의 현학적인 태도 비판**
- 해제: 이 작품은 시정(市井)의 상인과 어떤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 시조이다. 상인(게것 장수)이 동난지이를 사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동난지이가 무엇이라고 묻는다. 상인의 게의 모습과 맛을 한참 묘사하자 그 사람은 게것을 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리 복잡하게 말하느냐고 핀잔을 준다. 상인의 현학적인 태도를 풍자적인 어조로 인상스럽게 표현하고 있으며, 대화의 방식과 감각적인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유발하고 있다.
- 구성
- 초장 상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되물음
- 중장 상인이 게의 동작이나 게것의 맛을 장황하게 묘사함.
- 종장 상인의 현학적인 태도를 비판함.



'개념' 있는 킵샘

1. 작품은 아름다운 우리말의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O X]
2. 작품은 입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주제로 하고 있다. [O X]
3. 작품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내고 있다. [O X]
4. 작품은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O X]
5. 작품은 진솔한 감정의 표현을 통해 해학성(諧謔性)을 보여 주고 있다. [O X]
6. 작품은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7. 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심정은 정든 입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O X]
8. 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심정은 입이 없는 겨울 밤은 쓸쓸하다는 것이다. [O X]
9. 작품에 나타난 '춘(春)과 동(冬)'의 의미는 전통적 정서인 한(恨)의 상징이다. [O X]
10.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낸 묘미가 있다. [O X]
11. 각 행이 4음보율의 형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O X]
12. 참신한 비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O X]
13. 입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O X]
14.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고 있다. [O X]



'개념' 있는 킵샘

1.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는 표현으로 볼 때, 화자의 답답한 심정은 짝 막혀 있는 방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 X]
2. 구체적인 생활 언어와 친근한 생활 주변의 일상적 사물을

열거하고 있다.

3. 비애와 고통을 어둡게만 그려 현실에 대한 풍자라는 사실시조의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다. [O X]
4. '창'이라는 소재에 감정을 이입한 것은, 매우 인상적인 발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O X]
5. 화자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소망을 드러내고 이를 반복함으로써 현실이 견디기 힘든 지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O X]
6. 사람의 가슴에 창을 만드는 상황을 과장하여 익살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O X]
7. a-a-b-a 구조 등의 반복을 통한 리듬감이 느껴진다. [O X]
8. 문을 만드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모장지', '세살장지' 등을 통해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O X]
9. '종닥'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름의 깊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O X]
10.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진 엮이조에 해당한다. [O X]



'개념' 있는 킵샘

1. 이 노래는 대화체 구성을 사용하여 현학적인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O X]
2. 이 노래는 3장 형식의 형식미를 파괴하여 조선 후기 사실시조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O X]
3. 이 노래는 주로 중인과 양반계층에 의해 창작, 향유되었다. [O X]
4. 이 노래는 한자어에 의한 묘사가 주로 나타나므로 관념성이 부각되는 작품이다. [O X]
5.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표현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O X]
6. 서민들의 상거래 내용을 보여주면서 당대 식자(識者) 계층

의 허세를 비판하고 있다.

[O X]

7. ㉠을 통해 겉과 속이 다른 계것 장수의 현학적 언행을 풍자하고 있다.

[O X]

8. ㉡은 쉬운 고유어가 있음에도 일부로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계것 장수의 언행이 드러난다.

[O X]

9. ㉢의 화자는 계것 장수에게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 X]

10. 중장에서 나타난 계의 외양묘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을 쓰시오.

11. 다음 중 현학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시어를 골라 보자.
{ 황후, 외골내육, 양목, 팔족 }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 황진이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작자 미상

딛들에 동난지이 사오 | 작자 미상

[개념있는 킨공]

(가): ①O ②O ③O ④O ⑤X ⑥X ⑦X ⑧X ⑨X ⑩O ⑪O
⑫O ⑬O ⑭X

(나): ①O ②O ③X ④X ⑤O ⑥O ⑦O ⑧X ⑨X
⑩X

(다): ①O ②X ③X ④X ⑤O ⑥O ⑦X ⑧X ⑨X
⑩해학미, 골계미, 희극미 ⑪황후